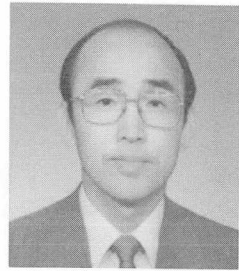


냉장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미리 대비를...



김 기 용
(주)퓨리나 코리아 대표이사

현재의 양돈시세는 생산비 이하인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과거 몇년을 돌이켜 보면 양돈업은 호·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던 축산업 중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전망이 가장 높은 축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 돈육수입이 개방된다면 이러한 양상이 다르게 변화될 것이다.

다른 육류에서 보듯이 일단 육류가 수입개방되면 엄청난 양이 수입되어 국내사육기반을 흔들여 놓듯이 돈육도 상당한 물량이 수입될 것이며, 특히 외국에서 하등육인 삼겹살, 갈비나 심지어 족등이 수입된다면 국내 돼지가격을 하락시켜 양돈업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돈육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분육 유통이 보편화된 외국에서 값싼 부분육이 수입된다면 그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앞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남아있는 일년동안 양돈인들과 관련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94년 냉장육 수입개방뿐만 아니라 '97년부터 개방되는 냉동육에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소비자를 생각하는 양돈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산성 위주로 양돈업을 해 온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돈육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좋은 품질의 돈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하고 돈사환경을 개선하여 항생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 전분야에서 우수한 돈육의 품질이 유지되어 소비자의 식탁까지 신선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수입개방화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돈인 뿐 아니라 관련업계 모두가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종돈장은 우수한 종돈을 조성·보급하고 시설 기자재 업계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기자재 개발 보급에 힘쓰며, 사료업계도 고효율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우수한 육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돈육수출로 국제보완 관계를 유지하여 양돈업을 계속 성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 최대 돈육 수입국인 일본시장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나라는 돈육수출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어 일본 소비자들과 보완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돈육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사육두수를 천만두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양돈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돈육 수출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 잠재력이 늘어나게 되면 돈육 수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수입 쇠고기의 경우처럼 개방과 동시에 순식간에 시장이 잠식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돈육 소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육을 먹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돈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돈육의 영양적인 우수성을 적극 알려 타 육류 대신 값싸고 영양 많은 돈육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육의 상표화 및 냉장육 유통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입맛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돈육소비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또한 수입개방에 대비한 적극적 대처방법의 하나이다.

다섯째, 수입된 냉장 돈육이 냉동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직은 국내 돈육 유통이 냉장육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냉장육이 냉동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냉장육이 들어와 냉동육으로 판매되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화 낭비가 됨은 물론, 국내 양돈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냉장육으로 수입된 돈육은 저장, 수송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냉장 상태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냉동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료원료의 70~80%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입원료 관세율의 조정과 축산기자재 및 사료의 부가세 면세 등의 조치와 돈육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출 지원 정책, 양돈단지 활성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등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 여섯가지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양돈인의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성장을 해온 양돈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수입개방화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겠다. 